

#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이 상 례

## 目 次

I. 서 론	IV. 속옷의 걸옷화 현상
II. 세기말 현상	1. 장작의 변혁
III. 속옷에 대한 일반적 개념	2. 노출의 극대화
1. 속옷의 정의	V. 요약 및 결론
2. 속옷의 사적 흐름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90년대 여성복 유행의 한 흐름으로 지목되는 경향 중의 하나가 속옷 같은 걸옷, 즉 란제리룩의 유행이다. 노출패션이라 의미 지어지는 이러한 경향은 1990년 미국의 인기가수 Madonna(마돈나)가 공연의상으로서 코르셋드레스를 입고 대중 앞에 나타남으로서 걸옷과 속옷을 구분해 오던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며 패션 무대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마돈나의 무대의상인 Jean Paul Gaultier(장 폴 골티에) 디자인의 코르셋드레스(그림 1)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속옷의 대중 노출이라는 점에서 노출이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 서구에서조차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속옷인지 걸옷인지 분간이 안되는 이 코르셋드레스는 어떤 이유에서건 이후 하나의 유행경향으로 확산되어졌고 이에따라 이제까지의 속옷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라는 공간에 따른 복식의 차별이 점차로 무너지게 되었다.

물론 엄밀하게 따져서 장 폴 골티에나 마돈나가 속옷의 걸옷화를 시도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다. 장 폴 골티에만 하더라도 1983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 코르셋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를 이미 발표했



<그림 1> '코르셋' 무대의상, Madonna, 1990  
Jean Paul Gaultier

었고, 그 이전에도 란제리풍의 드레스나 페티코트를 이용하여 디자인한 드레스 등이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험적으로 발표되고 시도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속옷과 겉옷의 혼재, 특히 상체부분만으로 한정된 부분적인 노출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일반에게까지 이러한 유행이 확산되고 하나의 패션트렌드로 까지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90년 마돈나의 코르셋드레스 이후 속옷같은 겉옷, 겉옷 위에 입은 속옷 등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급속히 받아들여졌고 이를 증명하듯 93년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Infra-Apparel'을 주제로 한 복식전이 개최되어 속옷을 모티브로 한 유행현상이 90년대 패션흐름의 한 경향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90년대의 속옷같은 겉옷, 겉옷 위에 입은 속옷등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꾸준히 발표되고 하나의 패션트렌드로 정착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그리고 이러한 란제리풍의 유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단순한 유행 트렌드로서 스쳐 지나가는 한 경향으로서 인가?

모든 패션유행에 나타나듯 사회현상의 반영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반동으로서의 경향인가?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에 대해 세기말 현상을 기초로 한 그 내적의미를 살펴보고 자 첫째 현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의 근거로서 세기말 현상에 대하여, 둘째 최근까지의 속옷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정리하고 셋째 현재의 속옷의 겉옷화 현상에 대한 외적 조형성을 분석하여 그 유행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범위는 세기말 현상과 속옷에 대한

개념은 문헌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유행의 내적, 외적 분석은 9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Vogue, Elle, Moda In의 컬렉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90년부터 현재까지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朝日新聞 기사를 참고로 하였다.

## II. 세기말 현상

1990년대는 정치적으로 세계 중심 구도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이 지배적이었고, 경제적으로는 92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출범과 89년 결성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그리고 EU를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삼극구도가 형성되었고, 80년대의 버블 경제의 붕괴와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급성장이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상하여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아시아는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00년이 되면 동아시아의 GNP는 북미나 서유럽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sup>1)</sup>

패션산업은 버블경제 붕괴 후 패션소비의욕의 침체기간을 겪으며 하이패션의 부재와 하나의 트렌드가 계속되지 않고 어지러운 정도로 변화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는 세기말적 변화기 특유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문제와 수자원 부족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대기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현대인들을 점점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의 오늘날은 19세기 후반의 시대 환경과 유사하여-찰리체플린의 영화 모던타임스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기계문명의 급속한 사회 침투에 따른 인간 심리에 한층 불안감을 더 했던 것과 같이- 20세기 후반에도 세계 정치구도의 변

1) 클라우스 슈밥 엮음, 장 대환 역, 「21세기 예측」, 매일경제신문사, 1996, p.319.

화에 따른 불안감,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위축과 다음 세기에의 기대감, 환경파괴에 따른 정신적인 긴장감 고조등 정신과 물질이 분할되어 가치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현실에의 불만족은 예술에도 반영되어, 90년대 세기말 디자인은 절충주의와 함께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의 양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 하이테크 디자인에서부터 쓰레기 재활용, 범람하는 키치(kitsch)적 사물과 이미지, 기술을 해석하는 디자인으로부터 수공예적 전통을 끌어당기는 디자인, 과거를 현재로 가져가는 '복고풍'에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사이버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세기말 디자인'은 모던디자인이 추구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산 원리 보다는 소비와 대중문화, 페미니즘, 컴퓨터화된 정보사회에서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한 원리로 간주하고 있다.<sup>2)</sup>

패션에 있어서도 90년대를 돌아보면 경기후퇴를 계기로 시작되었던 리얼 크로스 붐, 또 한편으로는 사이버, 그리고 로맨틱까지 큰 호를 보이면서 60년대의 허피, 70년대의 모즈등 과거의 서브컬처에의 회귀도 엿보인다.<sup>3)</sup> 이렇게 어지러운 정도로 상반된 개념의 트렌드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현실에 대한 불안과 회의는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고 성을 상품화하여 신체노출이 확대되고 기존문화에 대한 반동은 착장의 변혁을 가져와 사적인 영역의 속옷들을 겉으로 드러내며 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속옷이었던 의복을 일상에서 그대로 겉으로 꺼내 입고, 속옷에 주로 사용되었던 가볍고 얇고 비치는 의복소재를 겉옷의 소재로 사용하여 신체를

감추어진 듯 드러내어 공적공간에서의 노출의 극대화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불안은 과거에의 회상을 불러 지난 세기의 일종의 여성 고문의 도구였던 코르셋 등을 더 이상 억압과 학대로서가 아닌 로맨틱시즘(Romanticism)으로의 승화로 패션에 표현되고 있다.

1960년대의 Bra-Burning은 브라제어를 공중 앞에서 태움으로서 여성을 것처럼 오랫동안 격리해 온 '사적'과 '공적' 공간의 구분을 파괴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일이었다<sup>4)</sup> 브라를 태우므로써, 즉 브라의 착용을 거부하면서 여성에게 썩워진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을 파괴하려 했다면, 90년대에는 이 속옷을 겉으로 드러냄으로서 지금까지 속옷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개념인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의복을 남에게 보여지는 열려진 공간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속옷같은 겉옷, 겉옷같은 속옷의 유행은 속옷은 사적인 공간, 겉옷은 공적인 공간 이라는 공간적 구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첨단정보가 대중화되고 기술이나 미디어가 디지털화 되면 될 수록 표현은 아날로그화되고 있는 것<sup>5)</sup>과 같이 패션에 있어서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고 본적이 없는 새로움을 추구하여 실험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지난세기의 고전적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의 한 표현으로 속옷의 겉옷화는 시도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세기말적 현상이 20세기의 마지막을 지배하고 있고 새로운 정신이나 가치관은 아직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의 트렌드가 계속되지 않고 변화하는 복합적인 유행현상이 지속되는 한, 속옷의 겉옷화 유행은 노출이라는 대명제 아래 당분간 지속되리라 생각되어진다.

2)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1997, pp.119~124.

3) Fashion Forum, 삼성패션연구소, 1997. 9/vol. 51, p.22.

4) 최현숙,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재조명(I)",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1호, 1996, p.315.

제인용 : Evans, C. & Thornton, M. 「Women & Fashion」, London, NY : Quartet Books : 6, 13, 1989

5) Fashion Color No. 57, 1997.

### Ⅲ. 속옷에 대한 일반적 개념

#### 1. 속옷의 정의

속옷은 겉옷 속에 입은 옷,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을 일컫는데 시대와 견해에 따라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속옷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속옷이라는 개념의 시작을 거슬러 보면 최초의 의복은 한 장의 천으로 구성되어져 속옷과 겉옷이 구별되지 않았다.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 중왕국 시대 이후 양가의 여자들은 튜닉을 2장 겹쳐 입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한 장은 슈미즈로 속옷의 기초가 되었으며, 속옷은 속에 입어서 은폐된 의복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된다.<sup>6)</sup>

12세기의 미술작품에 나타나는 몸에 꼭 맞는 가운의 형태에서 복식사자들은 그 아래에 일종의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았나 유추하고 있지만 기록에 코르셋에 대한 언급은 14세기부터 발견된다.<sup>7)</sup>

Cunnington은 의복의 성차별화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중세 의복의 특징으로 ‘兩性の分化’를 지적하고 있으며, 겉옷의 발달과 함께 속옷의 수도 증가 된 중세를 여성 속옷의 확립기로 보고 있다. 동시에 페티시즘의 발생도 이 무렵으로 생각되며 또한 속옷에 대한 인간 감정의 새로운 발달단계가 보여지게 된다.<sup>8)</sup>

현대적인 속옷의 개념은 20세기에 들어서며 성립된 것인데, Fairchild's 복식사전의 정의를 보면 언더가먼트(undergarment), 언더웨어(underwear)는 피부 바로 위에 입혀지는 옷으로 여자의 란제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란제리는 슬립, 나

이트 가운, 팬티, 브라를 포함하며 이외에 combination, corset, foundation, teddy, bustier, petticoat 등을 속옷으로 정의하고 있다.<sup>9)</sup>

Cunnington은 “속옷은 관찰자로부터 완전하게 또는 대부분이 숨겨지는, 남녀에 의해서 입혀진 의복 모두를 포함하며 스타킹과 같이 애매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이트 드레스, 나이트 셔츠 등 잠옷은 속옷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hoop나 bustle 같은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는 정확하게 의복은 아닐지라도 속옷의 개념에 포함”하였다.<sup>10)</sup>

Saint-Laurent은 “속옷은 위에 입는 옷에 대하여 은폐된 혹은 어떤 경우에만 입혀진,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서는 안되는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되는 의복으로서 이 견해로 보면 속옷의 범위에 밤의 의복과 안쪽에 착용하는 의복이 포함되고, 드물게는 수영복과 발레 의상도 포함된다. 이러한 의복의 발전은 겉옷보다도 차라리 속옷의 발전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보다 깊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이해석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되어진다.”<sup>11)</sup>고 정리하고 있어 학자에 따라 속옷의 범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회는 “속옷(under clothes)을 크게 화운데이션(foundation), 언더웨어(underwear), 란제리(lingerie)로 분류하고 화운데이션은 기초라는 의미 그대로 기본 체형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브래지어(brassiere), 거들(girdle) 등을 말하며, 언더웨어는 생리위생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셔츠(shirts), 팬티(panty) 등을, 란제리는 속옷 중 가장 장식성이 풍부하며 제일 위에 입는 것으로 슬

6) Cecil Saint Laurent, 深井晃子 역, 「女の下着の歴史」, 문화출판국, 1981, pp.7~10.

7) 최현숙, 앞의 논문, p.313.

8) 石山 彰, “下着とは何か”, Soen Eye No. 8, 1992, p.16.

9)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2nd edition」, Fairchild pub., NY, 1988.

10)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ub., Inc. 1992, pp.12~3.

11) Cecil Saint Laurent, 앞의 책, pp.55~6.

립(slip), 가운(gown)등<sup>12)</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속옷의 기능은 추의로 부터의 신체보호, 의복의 형태유지, 청결, 속옷의 성적인 사용(erotic use), 계급구별의 방법의 5가지 기능으로<sup>13)</sup> 분류할 수 있는데 현대에 있어 속옷의 기능은 추의로 부터의 신체보호의 기능 보다는 체형보정의 목적과 의복의 형태유지, 성적인 표현등 장식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90년 이후부터 패션에 속옷의 걸옷화 현상이 나타나며 속옷이 더욱 섹시하게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고, 마치 걸옷과 같이 장식하며, 옷에 감추어져 드러내지 않았던 속옷 또한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각되어 걸옷으로 드러나는등 안으로 감추어져 있던 속옷에 개성 표현과 자기과시등 표현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속옷에 관한 여러 정의들에 대해 Saint-Laurent의 수영복과 발레의상까지 포함하는 정의는 의복의 분류를 고려해 볼 때 너무 범위가 넓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 문헌의 정의는 란제리를 슬립, 가운 등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어 Cunnington의 정의가 현재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견해로 보인다. 패션스타일에 관한 용어집과 복식사전, 속옷의 기능, 현재의 유행등을 고려해 볼 때 본 논문에서는 속옷에 대해 피부 바로 위에 입혀지는 옷으로서, 브라, 팬티/부루머, 코르셋, 부스티에, 슬립, 페티코트 등으로 제한하고 잠옷과 스타킹 등은 제외하고자 한다.

## 2. 속옷의 시적 흐름

현재까지의 복식의 역사를 고찰해 볼 때 속옷이 경우에 따라 걸옷으로 가시화 된다거나 걸옷이 속옷으로 기능이 전이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없



〈그림 2〉 슈미즈를 차림의 Marie Antoinette, 1783  
Infra-Apparel

지만, 아마도 속옷의 가시화의 가장 직접적인 예는 1783년에 그려진 마리 앙뜨와네트(Marie Antoinette)의 슈미즈 아 라 레느(chemise a la reine) 일 것이다(그림 2). 마리 앙뜨와네트가 슈미즈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게 한 것은 혁명적인 행동으로, 아마도 슈미즈가 프랑스 혁명 직전의 개인의 변덕과 자유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프랑스 여성들에게 부여된 글자 뜻 그대로이고 비유적인 긴장완화 일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Rousseau)의 자연주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시대적인 표현이다. 왕비가 지금까지 옷이 아니라고 생각되던 속옷을 입고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의복의 중요성에 대한 익살스런 변형으로 만약 슈미즈가 단지 감춰진 속옷에 불과하다면 걸옷처럼 걸옷으로 드러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sup>14)</sup> 슈미즈는 고대부터 남녀가 착용하여 온 속옷의 총칭으로 원피스식의 직선형 실루엣을 이루었으며 주로 흰색의 린넨으로 만들었고 후에 남성들의 셔츠로 변한 의복으로<sup>15)</sup> 18세기 말에는

12) 이문희, “언더크로스考-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복식 제9호, 1985, p.53.

13) C. Willette & Phillis Cunnington, 앞의 책, pp.14~8.

14) Richard Martin & Harold Koda, 『Infra Apparel』,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Y, 1993, pp.12~4.

15)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9, p.331.

본래의 의미에서 변용되어 슈미즈가운으로 유행하였다. 슈미즈가운은 얇고 부드러운 옷감을 사용하여 육체를 그대로 나타내려는 경향의, 당시의 의복으로는 육체를 가장 구속하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이 슈미즈 드레스는 제정 시대의 엠파이어 스타일로 발전되었는데, 엠파이어 스타일은 그전 시대의 단지 단순한 형태의 속옷이던 린넨드레스를 엄숙하고 고전적인 스타일로 바꾼것에 불과하여<sup>16)</sup>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속옷의 걸옷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또 다른 예로 Slip(슬립)을 들 수 있는데, 슬립은 17세기에는 반 투명 드레스의 안감, 18세기에는 코트셋 커버형을 지칭하였으나 19세기 초반부터 여성에 의해 입혀진 어깨끈이 있는 드레스의 길이에 따라 길거나 짧은 속옷을 의미한다.<sup>17)</sup> 어깨는 고정하고 스커트단은 퍼지는 가벼운 속옷인 슬립은 보통 걸옷과 속옷이 접하는 부분에 위치하여 증립적인 역할을 하며, 20세기에는 걸옷 형태로 사용되다가 차츰 걸옷화하여<sup>18)</sup> 90년대에는 속옷으로서 슬립의 판매량은 점점 줄고 있으며<sup>19)</sup> 슬립을 모티브로 한 걸옷, 슬립드레스가 유행하고 있다.

또한 걸옷에서 속옷으로 변화된 반대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드로어즈(drawers)는 -초기 색슨(Saxon)족의 명칭은 브리치즈(breeches), 브레이즈(braies)로 주로 농노계층에서 착용되었던 -12세기 전반까지는 남자들의 걸옷으로 입혀졌으나 차츰 12세기 중반 부터는 튜닉(tunic)에 의하여 감추어진 완전한 속옷이 되어 19세기까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입혀졌다. 그러나 몇세기 후 그 의복은 현대적 감각의 단어인 팬탈롱이나 브리치즈 형태로 다시 걸옷이 되었다.<sup>20)</sup>

복식의 양식은 그 문화권의 사상, 철학, 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동양과 서양은 미의식의 구조가 다르고 심미(審美)의 사고방식 또한 다르며 미적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서양 복식의 외적조형이 다르며 그 내적 표현미 또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sup>21)</sup> 한국복식에서도 속옷을 걸옷으로 드러내 입은 착장을 18세기의 풍속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걸치마를 걷어올려 속에 입은 속바지를 걸옷으로 드러나게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회화 속의 여인은 기녀로 보이나 이러한 착장 모습은 일반 여성에게서도 볼 수 있어 당시대의 유행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림 3> 걸옷으로 드러난 속바지, 18C  
혜원 풍속화, 「한국유물오천년」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난 세기에 란제리는 관능성과 파계를 상징했었다. 특히 공공의 장소에서 속옷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금지되었었고 일

16) Richard Martin & Harold Koda, 앞의 책, p.122.

17)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앞의 사진, p.525.

18) Richard Martin & Harold Koda, 앞의 책, p.120.

19) 朝日新聞, 1992년 2월 19일.

20) C. Willette & Phillis Cunningham, 앞의 책, p.13.

21) 이상래,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5, p.15.

부계층에서만 속옷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는 속옷을 겉으로 드러내 입는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특수한 계층에서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곧 속옷이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변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적인 영역으로 머물기를 기대한 것이 공적인 영역으로 변한다는 것에 우리는 편안해하지 않으며, 한 시대의 속옷은 다른 시대의 겉옷이 되기도 하였으며, 특정 시대의 세련된 의복형태가 다른시대에는 유치한 의복형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sup>22)</sup>는 것을 깨닫게 한다.

#### IV. 속옷의 겉옷화 유행

##### 1. 착장의 변혁

속옷같은 겉옷이 유행하며 이제까지의 의복에 관한 고정관념인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는, 그 관념에 대해 장 폴 고티에가 의문을 제시하였다.

‘우리 시대의 패션에 터부란 없다. 속옷의 아름다움을 감추어 두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고 말해왔던 고티에는 1990년 스트라이프 검정색 울 슈트 위에 핑크 색 새틴의 신축성있는 코르셋을 덧입는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원추형으로 가슴을 강조하고 바디슈트의 아래에는 가터 벨트(garter belt)로 장식한 <그림 4>는 코르셋이나 가터 벨트가 지닌 본래의 기능에서 의복의 장식적인 요소로 변화한 예이며, 속옷 위에 겉옷이라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겉옷 위에 입은 속옷은 더 이상 속옷이 아니라 겉옷으로 그 기능이 전이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제는 겉옷이다. 속옷이다 하는 구분조차 필요하지 않은 듯하다.



<그림 4> 겉옷 위에 입은 속옷, 1990  
Infra-Apparel

19세기에 겉옷의 실루엣을 위한 체형 보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코르셋은 20세기 말에 타인에게 보여주는 옷으로 은폐되고 감추어지었던 본래의 기능과는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고, 오래된 기억 속의 드레스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며 재미있고 대담한 아이템으로 패션쇼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코르셋의 기원은 기원전 1500년 경의 크레타 문명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특히 가는 허리가 요구되었던 중세 이후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19세기에 로맨틱스타일의 심볼이 된 가는 허리는 코르셋 없이는 불가능하였으며 이후 20세기 초에 뽀아레의 코르셋 해방까지 여성복에서 필수품이었다.<sup>23)</sup>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 고래수염 등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었던 코르셋은 20세기에 들어 합성섬유의 발달과 함께 폴리에스테르(polyester)와 나일론(nylon) 등으로 그 소재가 변하였고 최근에는 탄력성있는 소재인 라이크라(lycra)와 스판덱스(spandex)등으로 발전하여 훨씬 부드러워 지고 딱딱함으로 인한 착장의 불편이 많이

22) Richard Martin & Harold Koda, 앞의 책, p.11.

23) 浪漫衣裳展, 京都國立近代美術館 전시도록, 1980년 4월 5일~6월 1일, 1980.

해소되었다. 과거의 허리를 조이는 역할은 많이 약화되었으며 데님(denim)이나 니트도 많이 쓰이는 소재이다.

코르셋의 걸옷화 유형 중에서 코르셋을 현대화한 디자인으로 많이 표현되는 양식은 <그림 5>와 같이 역사 속의 코르셋/부스티에를 그대로 재현한 드레스나 탑이다.



<그림 5> 코르셋 드레스, Soen Eye No. 8, 1992

골티에가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1983년 봄, 여름 여성을 위한 컬렉션으로 '다다이즘(Dadaisme)'을 위한 살색의 코르셋 드레스(First salmon-pink corset-dress)와 코르셋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를 발표<sup>24)</sup>한 이후 골티에는 코르셋등 속옷을 모티브로 한 의상을 계속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는데, <그림 5>는 92년 작품으로 19세기의 코르셋을 안에서 겹으로 드러낸 상의와 부드러운 쉬폰의 시-쓰루를 이용한 드레스이다. 앞에서 끈으로 여미는 부스티에 형식으로 로맨틱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허리를 잘록하게 조여주고 가슴의 볼륨감을 강조하여 자연스러움 보다는 의도적인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으나 과거의

코르셋의 의미와는 달리 자기 만족의 화려한 도구로 표현되고 있다.

골티에가 마돈나의 무대의상 등에서 보여준 충격은 비밀스러운 속옷을 공식적인 무대라는 외부로 드러냄을 통해 기존의 옷에 있어 안과 밖의 개념이 무너짐으로서 파생된다. 그 충격은 양면적으로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려졌을 때 쏟아져 나온 것들에 대한 당혹스런 고통감과 굳게 잠겨있던 신비가 풀렸을 때 느껴지는 해소감의 이율배반등은 의복의 완전한 존재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대감에 대해 일종의 폭력적 해체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sup>25)</sup>



<그림 6> 코르셋을 입은 남성, Vogue U.S.A 1995년 12월호

<그림 6>은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의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코르셋 디자이너인 펄(Pearl)이 만들고 그 자신이 모델이다. 펄은 다른 어떤 여자 보다도 가는 허리 18인치로 하루 목욕시간을 제외한 23시간 코르셋을 착용하고 있다. 가슴은 아주 납작하게 표현하고 가는 허리는 중첩부분을 부풀림으로서 더욱 강조하고, 셔츠 위에 착용하고 있다. 걸옷같은 속옷이 유행하며 역사

24) Farid Chenoune, 「Jean Paul Gaultier」, Thames & Hudson, 1996, p.77.

25)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래픽스, 1994, p.177.



속의 코르셋이 디자인의 주요 모티브로 등장하고 그 디자이너인 펠 역시 가끔씩 패션쇼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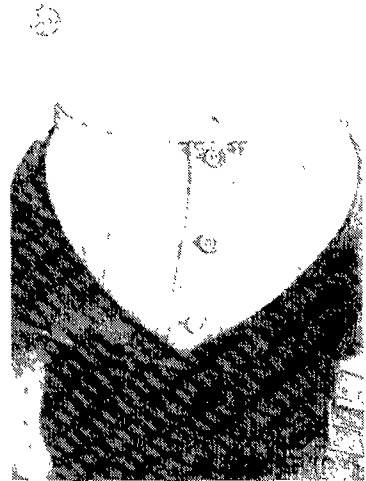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의상개혁 운동을 통하여 패셔너블한 의상을 벗어버리고 남성적인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남성과 사회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시도하였었는데,<sup>26)</sup> 이성인 남성을 유혹하려는 성적인 도구인 코르셋을 20세기 후반에 남성이 착용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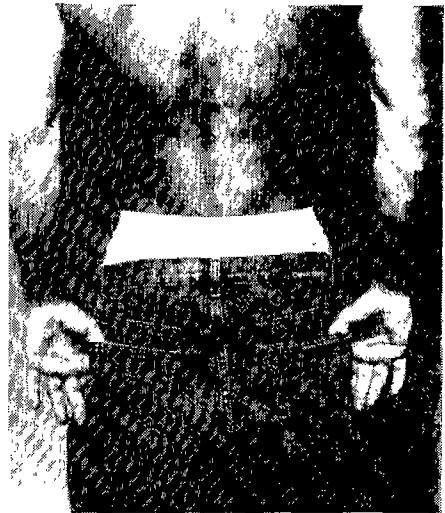
〈그림 7〉 겹옷화 한 속옷,  
Moda In N. 100, 1996

〈그림 7〉은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1996년 디자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속옷으로 사용하였던 브라와 웨이스트 니퍼를 결합하고 겹옷으로 드러내어, 속옷과 겹옷이라는 옷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격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림 8〉은 장 폴 고티에의 1983년 봄, 여름 여성을 위한 ‘다다이즘(Dadaisme)’ 컬렉션의 La Mode en Peinture로 부티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바지의 허리 부분을 여미지 않아 의도적으로 속옷을 겹



〈그림 8〉 겹옷으로 드러난 속옷 1, 1983  
Jean Paul Gaultier



〈그림 9〉 겹옷으로 드러난 속옷 2, 1993  
Infra-Apparel

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착장은 90년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유행 스타일이 되었는데, 〈그림 9〉에서는 - 켈빈클라인의 속옷광고로 - 1990년대의 도시생활을 나타내는 헐렁한 진이 팬티의 허리밴드를 약간 노출 시키면서 힙에 낮게 걸쳐졌다.<sup>27)</sup>

26) 손미희,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p.120.

27) Richard Martin & Harold Koda, 앞의 책, pp.43, 124.

이렇게 팬티의 허리밴드 부분이 드러나게 진을 착용하는 착장은 TLC와 같은 랩그룹에 의해 입혀졌고<sup>28)</sup> 힙합 스타일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퍼져나갔으며, 비밀스러운 속옷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서 기존의 옷에 대한 안과 밖의 개념을 해체시키고 있다. 겉옷에 의도적으로 드러낸 팬티는 팬티의 고급화를 가져와 속옷시장에 있어 고급 브랜드를 확산 시키며 속옷 디자인에 유명 디자이너들을 진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속옷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가져왔다.

## 2. 노출의 극대화

속옷같은 겉옷의 유행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노출의 극대화이다.

1960년대에는 여성해방운동과 저항문화의 확산, 미니스커트의 유행등으로 몸의 노출이 확대되며 노브라는 여성해방의 상징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볼륨있는 가슴의 유행이 되돌아 왔고 와이어 브라가 유행하였으며, 제인폰다의 에어로빅, TV에서의 운동프로 등의 인기로 란제리는 스포츠와 댄스의 새로운 차림새로 이용되기 시작하여<sup>29)</sup> 서포트 브라와 같은 속옷은 그대로 겉옷으로 드러나 액티브 스포츠 웨어로 활용되고 있다.

90년대에는 일상복에까지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브라가 겉옷으로 드러나 신체노출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 겉옷으로서의 브라의 출현은 일부 대중연예인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신디로퍼 혹은 인기그룹 유리드믹스(Eurythmics)의 여자 가수 앤 레녹스(Annie Lennox)의 레이스브라 차림의 무대의상에 의해서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바지나 스커트 차림에 상의는 브라만 착용한 겉옷과 속옷의 혼재된 차림은 이전에

도 시도되어 왔으나 대중에게 일상복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마돈나의 노출 이후이다.



〈그림 10〉 브라, 쇼츠의 겉옷화,  
Fashions of a Decade : The 1990s

〈그림 10〉을 보면 배꼽을 드러내고 구조적인 조형성을 강조한 브라와 팬츠를 겉옷화한 디자인으로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의 작품이다. 이 디자인은 여체미와 건강미 본래를 추구한 패션으로 점정의 가랑이가 없는 타이트한 팬츠는 위의 브라와 끈으로 연결되어 겉옷화 하였으며 이제까지의 속옷에 싸여 있었던 신체에의 해방감을 느끼게 하며 신체노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브라의 겉옷화가 좀 더 적극적인 신체노출의 표현이라면 속옷의 겉옷화와 함께 보편적으로 유행하게 된 스타일이 탑(Top)이다. 탑은 런닝셔츠 형태의 여성용 겉옷으로 티셔츠 위에 겹쳐 입거나 직접 맨살 위에 입는 것으로 1970년대 후반에 유행한 스타일이다.<sup>30)</sup> 90년 이후 속옷의 겉옷화 유행과 함께 다시 유행되어 특히 가는 어깨끈과 바디웨어, 배꼽이 드러나는 미드리프(midriff)는 배꼽의 노출이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고 있는 동양권

28) VOGUE : U.S.A 1996년 1월호 p.124.

29) Beatrice Fontanel, 『Corsets et Soutiens-gorge』, Editions de La Martiniere, 1992, p.146.

30) 복식사전, 라사라, 1992, p.158.

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또한 운동복(Active Sports Wear)이나 휴양복(Resort Wear) 등으로 입혀지던 쇼트팬츠는 짧아질때로 짧아져 팬티와 반바지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일상복화하고 있다. 종래의 반바지는 짧아도 가랑이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림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랑이가 없는 팬츠(속옷)의 형태도 일상복으로 입혀지고 있다.



<그림 11> 속옷 같은 겉옷, 1997  
Elle 한국판, 96년 12월호

<그림 11>은 홍 미화의 '97 파리 프레타 뽀르테 봄 여름 컬렉션으로 팬티 갈기도 하고 잠옷갈기도 한 섹시한 분위기의 속옷같은 디자인이다. 흰색과 레이스의 조화는 시원스럽고 편안해보이며 속옷같은 짧은 팬츠는 자유로움이 배어져 나온다.

이렇게 <그림 10> <그림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랑이가 없는 팬츠는 속옷이나 수영복, 또는 특수기능을 가진 스포츠 웨어로 인식되어 지던 것에서 일상복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신체의 노출이 극대화된 브라와 쇼츠의 유행은 의복의 신소재 개발로 더욱 확산을 가속화 하고 있다. 텍스타일의 혁명, 즉 라이크라 혹은 마이크로 섬유 같은 것들은 피부에 불편함을 감하였고 피부에 밀착되어 마치 피부와 같이 느낌을 주게 되었으며 신축성 있는 레이스, 면 등은 브라와 팬츠에 좀 더 세련되고 안락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88년부터 Huit(프랑스의 란제리 상표이름)에서는 란제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벨벳 브라를 내놓아<sup>31)</sup> 더 이상 속옷과 겉옷이라는 의복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속옷의 겉옷화는 신체 노출에 대해 서양보다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도 유행하여, 일본에서는 91년 4월 '마돈나의 일본 공연 직후 시내 백화점 등의 속옷 판매장에서 레이스나 리본장식의 브라 등을 찾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였다'는<sup>32)</sup>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속옷의 겉옷화는 일본을 비롯한 동양권에서도 유행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고 있는 몸에 꼭 맞으며 허리를 드러내는 미드리프(배꼽티)는 94년 7월 광주에서 배꼽을 드러내는 옷차림으로 경범죄에 기소되었으나 '배꼽노출은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sup>33)</sup> 또한 95년에는 여성속옷의 겉옷화가 진행되어 10~20대를 대상으로 갈비뼈를 겨우 덮을 정도의 러닝, 꽃무늬나 체크무늬 천으로 컵을 강조한 브라지어가 인기로 브라지어나 러닝셔츠 위에 가벼운 카디건이나 재킷을 걸치면 곧장 외출복이 될 수 있을 정도<sup>34)</sup>로 일반화되었다.

이는 한국에서의 신체노출에 대한 의식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배꼽티에 대하여 처음에는 외설시하고 금기시하였던 기성세대조차도 하나의

31) Beatrice Fontanel, 앞의 책, p.146.

32) 朝日新聞, 1992년 2월 13일.

33) 조선일보, 94년 7월 20일 사회면.

34) 조선일보, 95년 5월 11일 (생활) 기획, 연계.

유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어느정도의 신체노출 의상은 더 이상 거리에서의 구경거리가 아닌 보편화된 유행이 되었다.

90년대 유행 경향으로 또한 시-쓰루(see through)의 유행을 들 수 있는데 직접적인 신체의 노출은 아니나 가리워져 비치는 효과로 신체노출에 따른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시-쓰루 룩을 속옷의 걸옷화의 가장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소재에 의해 신체가 노출되는 시-쓰루 룩은 투명한 옷감을 통해 여성의 아름다운 피부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1960년대 중반에 출현해 1980년대 초반에 강세를 보인바 있다.<sup>35)</sup> 속옷의 특성상 속옷의 소재로 가장 가볍고 얇은 옷감이 선호되었는데 얇아서 몸매를 드러내던 이러한 소재가 바로 걸옷으로 변용된 것이다.



〈그림 12〉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시-쓰루 룩  
Moda In N. 102, 1997



〈그림 13〉 슬립드레스 1  
Moda In N. 103, 1997

〈그림 12〉는 레이스 소재로 신체의 곡선과 가슴, 배꼽 등을 드러내고 안에 입은 검정색 쇼츠는 그대로 드러나 속옷과 걸옷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림 13〉은 Dolce & Gabbana의 97년 작품으로 단지 지나간 시절의 할머니의 속옷같은 고상한 드레스의 간결한 디자인이다. 속에 입은 브라와 팬티가 걸으로 드러나며 걸으로 입은 드레스 역시 슬립형태의 드레스이다. 얇고 비치는 투명한 소재가 유행하면서 속옷 또한 〈그림 12, 13〉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걸옷화하고 있다.

시-쓰루가 유행하며 많이 쓰이는 소재가 부드럽고 여성스런 느낌의 레이스와 쉬폰 등인데 이는 속옷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것이고 시-쓰루의 유행과 함께 다시 부각된 스타일이 슬립 드레스(Slip dress)이다.

1973년 산탈 토마스(Chantal Thomass)가 캐미슬 룩을 발표한 이래 토마스는 소멸 상태에 있던 여성용 속옷의 여러 종류를 새로운 용도로 제시하였는데 여성 관제리의 실용화는 새로운 충격을 주었으며 섹시한 복장의 부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36)</sup> 그러나 세계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슬립드레스, 캐미슬 룩이 유행하게 된 것은 90년대 부터로, 슬립 드레스의 경우 마치 내의와 같은 여름옷이 파리아에서는 1990년경부터 유행이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캐주얼드레스로서 베이비 돌 드레스 스타일(baby doll dress)이 전개되었다.<sup>37)</sup> 미니스커트와 팬츠 스타일이 유행하며 그 판매량이 감소된 속옷, 슬립은 이제 로맨틱한 걸옷으로서 유행하고 있다.

〈그림 14〉는 Miu Miu의 96년 디자인으로 20세기 초의 유명한 아르누보 아티스트인 알폰스 뮤차(Alfons Mucha)에 의해 그려진 회화의 퇴폐적인

35) 강정화, 금기숙,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 제30호, 1996, p.219

재인용 : Marguerite Bras, 『Yves Saint Laurent Images of Design 1959~1988』, London : Ebury press, 1988, p.65.

36) 강정화, 금기숙, 앞의논문, pp.219~220.

37) Fashion Genesis, vol. 84, 1992, p.43.

여 주인공이 입고있는 하늘거리는 튜닉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드레스이다. 과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고 순수하게 표현하여<sup>38)</sup>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14〉 슬립드레스 2  
Moda In N. 100, 1996

슬립 드레스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들은 심플라인의 실루엣으로 부드러운 몸체를 투명한 소재를 통해 감싸며 편안하고 자유로운 우아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96년, 97년 컬렉션에서 두드러지는 디자인 요소는 어깨의 가는 끈인데 97년에 점차로 더 가늘어져 드러난 어깨로 섬세함, 순수, 관능미를 강조하고 있다.

97년 여름의 드레스는 Minimalist의 엄격과 Romanticism의 부드러움 사이의 결합<sup>39)</sup>이 주요 테마로 나타나고 있는데 슬립형 드레스는 얇고 비치는 옷감을 몇겹씩 겹쳐입으며 〈그림 13〉과 같이속

옷을 의도적으로 겹으로 드러내고 있고 겹옷도 속옷같은 심플한 디자인이 유행이다.

한국에서도 ‘여성복, 란제리 스타일 바람 / “속옷같은 겹옷” 노출강조’.<sup>40)</sup> ‘준배짚티 / 핫팬츠, 속치마같은 드레스. 이색패션 거리를 누빈다’.<sup>41)</sup> ‘속옷같은 겹옷 란제리룩의 유행’.<sup>42)</sup> ‘비치는 옷-란제리룩 올 여름 유행’.<sup>43)</sup> ‘로맨티시즘의 부활과 함께 란제리룩이 급부상하고 있다’.<sup>44)</sup> 등의 기사에서 보듯이 속옷의 겹옷화 유행은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유행은 주로 무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슬립드레스나 슬립형 탑, 비치는 옷감이나 레이스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레이스나 비치는 옷감의 사용은 단독으로 쓰여지기 보다 다른 것과 겹쳐입는다거나 부분적인 사용등으로 직접적인 노출은 피하는 경향이다. 슬립드레스도 드레스 하나만을 입기 보다는 기본형의 다른 드레스 위에 덧입거나 스판 티셔츠를 속에 받쳐 입는다든가 매쉬 카디건을 겹쳐입는 방법, 레깅스와 함께 입는 방법 등 다른 아이템과의 조화로 모던하면서도 한국적인 룩을 만들어 내고 있다.

## V. 요약 및 결론

1990년 장 폴 고티에 디자인의 코르셋 드레스를 마돈나가 대중 앞에 선보인 이래, 노출패션이라 의미 지어지는 ‘란제리 룩’은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며 패션 무대의 전면에 화려하게 부각되어 90년대 여성복 유행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속옷인지 겹옷인지 분간이 안되는 이 코르셋드레스는 어떤 이유에서건 이후 하나의 유행경향으로 확산되어졌고 이에따라 이제까지의 속옷의 사

38) Moda In N. 100, 1996, pp.198~9.

39) Moda In N. 103, 1997, p.26

40) 동아일보, 95년 2월 19일 (생활) 기획, 연재.

41) 동아일보, 95년 5월 17일 (생활) 뉴스.

42) 동아일보, 97년 5월 10일 (생활) 기획, 연재.

43) 조선일보, 97년 5월 27일 (생활) 기획, 연재.

44) Elle 한국판, 96년 12월, p.282.

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라는 공간에 따른 복식의 차별이 점차로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90년대의 속옷같은 겉옷, 겉옷 위에 입은 속옷 등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꾸준히 발표되고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정착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러한 런제리룩의 유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한 속옷의 겉옷화 유행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의복의 형태는 시대, 즉 사회환경에 따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세기 후반에는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위축과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른 정신적인 긴장감 고조, 다음 세기예의 기대감동 사회적 정체성이 불안정해지면서 정신과 물질이 분할되어 가치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예술에 있어서는 절충주의와 함께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의 양상으로 세기말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기말적인 현상은 복식에도 반영되어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고 일상에 대한 회피와 일탈, 구태의연함에 대한 반동으로 신체노출이 확대되고 착장의 변혁을 추구하게 되어 속옷의 겉옷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속옷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복이 겉옷화한 예는 슈미즈나 슬립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1983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 장 폴 고티에가 코르셋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를 발표하고—엄밀히 말하면 그 이전에도 몇몇 디자이너들에 의해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발표되어 왔었지만—90년 마돈나에 의해 무대의상으로 코르셋을 선보인 이래 브라, 팬티, 코르셋, 슬립등 속옷이 겉옷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회의에 의해 보다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성을 상품화하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사회 환경에 부합되어 섹스어필이라는

전체의 객관화로서 Minimalist의 엄격을 바탕으로 한 공적공간에서의 노출의 극대화로 나타나 브라, 팬츠 등 속옷이 겉옷으로 유행되며, 현 시대에 대한 불안은 과거에의 회상을 불러 지난 세기의 일종의 여성 고문의 도구였던 코르셋 등을 신 소재의 개발에 따라 더 이상 억압과 학대로서가 아닌 Romanticism으로 승화해 패션에 표현되고 있다.

또한 가리고 감추고자 하는 속성에 대한 반동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투명한 소재에 의한 시—쓰루의 유행을 가져왔고, 속옷같은 겉옷의 유행은 속옷 또한 소재의 다양화를 가져와 소재에 있어 니트, 데님, 벨벳등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유명 디자이너들을 속옷 디자인에 까지 그 디자인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속옷의 겉옷화는 사적인 영역의 속옷들을 겉옷으로 드러내어 지금까지의 사적인 영역으로서의 속옷,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겉옷이라는 의복의 공간적 개념을 파괴하고, 속옷위에 겉옷이라는 착장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마돈나를 비롯한 인기인들의 무대복은 더 이상 무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대중화되어 무대복과 일상복이라는 의복의 차별화를 없애고 있으며 노출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도 유행하여, 신체노출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 본 것과 같이 첨단정보가 대중화되고 기술이나 미디어가 디지털화 되면 될 수록 표현은 아날로그화되고 있는 것과 같이 패션에 있어서도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고 본적이 없는 새로움에의 추구는 실험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지난세기의 고전적 룰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하여 속옷의 겉옷화는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한 표현으로 시도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의복은 이제 신체와 외부공간과의 격리 단계를 뛰어넘어 의복 자체를 피부의 개념으로 표현화하여 점차 더 피부에 밀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류는 의복의 기능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배

제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이고 미래 복식의 중요한 경향이 될 것이다. 이에 의복의 신체 밀착은 속옷과 겉옷이라는 구분의 개념을 파괴하여, 그것이 어떤 디자인의 형태를 취하여 나타나는 상관없이 신소재의 개발과 함께 필연적으로 속옷의 겉옷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세기말적인 불안감과 다음세기에의 회의와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어 당분간 지속되리라 생각되어진다.

### 참고문헌

-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4
-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술, 1997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 문화」, 교문사, 1996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9
- 클라우스 슈밥 엮음, 장대환 역, 「21세기 예측」, 매일경제신문사, 1996
- 폴 케네디, 변도은, 이일수 역, 「21세기 준비」, 한국경제신문사, 1996
- 「복식사전」, 라사라, 1992
- 강정화, 금기숙,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 제30호, 1996
- 김지연, 전해정,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복식 제32호, 1997
- 손미희,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1997
- 이문희, “언더크로스考-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복식 제9호, 1985
- 이상례,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1995
- 최현숙,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재조명(I)”,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1호, 1996
- Fashion Genesis, 1992. 10 / vol. 84
- Fashion Forum, 삼성패션연구소, 1997. 9 / vol. 51
- 조선일보 94년 7월 20일  
95년 5월 11일  
97년 5월 27일
- 동아일보 95년 2월 19일  
95년 5월 17일  
97년 5월 10일
- Elle 한국판 96년 12월호
- Richard Martin & Harold Koda, Infra Apparel,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2nd edition, Fairchild pub., NY, 1988
-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ub., Inc. 1992
- Beatrice Fontanel, Corsets et Soutiens-gorge, Editions de La Martiniere, 1992
- Elane Feldman, Fashions of a Decade : The 1990s, Batsford, 1992
- Jennifer Ruby, Costume in Context : Underwear, Batsford Ltd, 1996
- Farid Chenoune, Jean Paul Gaultier, Thames & Hudson, 1996
- Cecil Saint Laurent, 深井晃子 역, 「女の下着の歴史」, 문화출판국, 1981
- 浪漫衣裳展, 京都國立近代美術館 전시도록, 1980년 4월 5일~6월 1일, 1980
- Soen Eye No. 8, 1992
- Fashion Color No. 57, 1997
- Moda In, N. 90~103
- Vogue : U.S.A 95년 12월호
- Vogue : Italia 94년 3월호

- 朝日新聞 (日本) 92년 2월 13일, 14일, 15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 ABSTRACT

### The Vogue about Outwearization of Underwear in a Tendency to the Century-end

One of the noticeable trends of female wear in 1990s is the Outwearization of Underwear as it is called 'Lingerie look'. This trend, meant 'Exposure Fashion', raised splendidly its head to the whole stage of fashion destroying the traditional concept having divided the fashion between outwear and underwear, by Madonna, an American populer singer, showed up in front of the audience wearing the corset-dress as a stage custome.

This corset-dress, which can not be recognised whether it is underwear or outwear, has been diffused into the mass as a fashionable trend regardless of any reasons : therefore, discrimination of wear by space by far that is underwear should have the standard telling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 has been gradually tumbled.

By the way, what has propelled desigers to introduce the style continuously having the underwear motive such as outwear almost as same as underwear or underwear worn on outwear etc., and has made it a fashion trends? How do we accept this 'Lingerie look'fashion? The rearch on vogue of outwearization of underwear, started by the questions above,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The division between the sprit and the material-economic shrinkage by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late of 20 century

and expectation for the next century, doubt by changes of international politics dynamics for the next century and incresement of psychological tention by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etc. has been extended to break the sense of value down. These frustration of the traditional values and dissatisfaction on the present have reflected on the fashion, pursuing some more sensational style to increase the exposure of the body.

The revolution of wearing bouncing the conservatism has outwardly expressed underwear of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the spatial concept of wear, which is underwear for the private sector and outwear for the public sector, has been fallen into pieces and has broken the wall of the concept fixed by outwear on underwear. In addition, the stage custome for the popular people like Madonna has not been limited by the specularity any more and has been assimilated with the normal wear on the street to take the distinction far away.

The circumstances of the late of 20 century, pursuing sensation and making sex commercialized, have accordance with the outwearization of underwear. there, it is on the basis of Minimalist's dogmatism has been expressed the maximization of expoure in the pubric space to popularize bra, pants (knickers) as outwear. The reaction on the attribute of hiding and shanding (blocking)has brought 'See-Through fashion' with the transparent materials.

The contemporary doubt recalling the memory of the past has sublimated corset, which was an instument of toture for women, into Romanticism to introduce it to fashion with



the development of a new material not to be a tool of any oppression and maltreatment any longer. The popularization of outwear like underwear, what's more, has brought high quality of underwear. There, it has called for the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knit, demin, and velvet etc. and has urged the famous designers to enlarge their working boundaries to underwear designs.

Besides, outwearization of underwear has been popular even in the Orient, which has the conservative opinions on exposure : so, changes of the thoughts can be seen among the establishment generation on exposure of the body.

As the more high tech information publi-

cized and the more technology and media digitalized, the more expression being analog, the pursue for the new in fashion with vision, never been seen and even though it is impractical, the experimental designers have driven the freedom beyond the traditional roles of the previous century.

Consequently, outwearization of underwear may be viewed as a trial as an expression responded the contemporary background. This trend, in my opinion, will have been lasted for a while by being proliferated among the public who has the century-end anxiety and doubt and expectation for the next century.